

제5장 구술문화의 특징과 맥루언의 미디어 이론

제5장 1교시

◆ 구술문화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 구술문화의 특징

1917년 혁명 직후 러시아에는 아직 문자문화를 모르는 농촌 공동체가 남아 있었다. 루리아라는 이름의 언어학자가 그런 마을 중 한 곳에 들어가 그곳 농민들을 상대로 필드 워크(현장조사)를 했다. 연구의 결과는 대단히 흥미로웠다. 아직 구술문화 단계에 있는 농민의 사고방식은 문자문화에 속한 이들의 것과는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였다.

1) 정의와 추상의 문제

사물을 '정의'하는 것도 구술문화에서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무'가 무엇인지 설명해보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이렇게 대꾸했다고 한다. '어째서 그래야 하죠? 나무가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누구도 나한테서 그런 설명을 듣지 않아도 되거든요.' 나무를 두 단어로 '정의'해보라고 요구하자,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한다. '두 단어로요? 예, 사과나무 ·느릅나무 ·포플러나무가 되려나?'

구술문화에 속하는 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추상'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해머 ·톱 ·나무 ·손도끼 등을 보여주며 공통점을 말하라고 했더니, 그 마을의 사람들은 '연장'의 개념을 떠올리지 못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대꾸했다고 한다. '톱은 나무를 썰고, 손도끼는 통나무를 가르죠. 굳이 내게 어느 한쪽을 버리라고 하면, 손도끼가 될까? 톱은 여러 일을 할 수 있으니까.'

2) 추론능력

우리의 삼단논법의 형식논리도 그들에게는 낯선 사고였다. '눈이 있는 북극지방에 사는 곰은 모두 흰 빛깔을 하고 있습니다. 노바야젬블라는 북극지방에 있으며, 거기에는 늘 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곰은 어떤 색깔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농민들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까만 곰이라면 본 일이 있습니다만, 다른 빛깔을 한 것은 본 일이 없거든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우즈베키스탄의 농민들은 제 자신을 분석하는 데도 곤란을 느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그들은 인격을 기술하는 대신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우즈그루간 출신이죠. 무척 가난했고 지금은 결혼해서 자식도 있어요.'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너무나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땅이 좀더 있어 보리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3) 반성적 사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철학에서는 흔히 '반성'이라 부른다. **반성적 사유 역시 구술문화에는 낯선 것이었다.** 가령 '당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라는 물음에 농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기의 성격은 이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라면 나에 관한 것을 당신에게 여러 가지로 말해줄 것이니까요.'

자신을 평가하는 데도 익숙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사람이 있지요. 침착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등.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화를 벌컥 내며 말했다. '우리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

→ 여기서 자기에 대한 평가는 집단에 대한 평가('우리')로 조정되고, 거기서 다시 예상되는 타인의 반응으로 환치된다. '만약 우리들이 나쁜 놈이라면 아무도 우리들을 존경하지 않겠죠.'

▲ 1차 구술문화와 2차 구술문화의 구별

월터 옹은 전자매체를 통해 구텐베르크 은하의 끝에서 구술문화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니스나 월터 옹, 맥루한은 모두 1차 구술문화와 2차 구술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1차 구술문화와 2차 구술문화는 완전히 다른 문화이다.

1차 구술문화는 문자가 없을 때의 구술문화이고 2차 구술문화는 이미 문자문화를 겪은 뒤의 구술문화인 것이다.

⇒ 우리가 새로 맞는 구술문화는 문자문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어야 한다. 즉 문자문화에서 얻은 추상능력들, 추론능력들,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 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

우리처럼 인터넷에 목매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를 빼면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하루의 상당 시간을 인터넷에 들어가 산다. 메신저로 타인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다른 이의 블로그, 기관이나 단체 홈페이지로 마실 다니기를 즐긴다.

⇒ 서구의 인터넷 이용이 '정보적'이라면, **우리의 인터넷 문화는 이렇게 '친교적'이다.**

사이버 공간의 온도도 다르다.

예)가령 독일 인터넷에서 벌어진 논쟁. 사형제에 반대하는 이가 말한다. '누가 당신에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를 주었는가?' 찬성론자가 반박한다. '그럼 사람을 잡아가둘 권리는 누가 주었는가?' 서구의 인터넷 논쟁은 이렇듯 논리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온도는 뜨겁다. '그런 놈은 쳐 죽여야 해.' '네 가족이 그놈한테 살해당했다고 생각해봐라.'

⇒ 이렇듯 언어는 감정적이고, 논증은 감정이입적이다.

▲ 디지털 복제시대의 구술문화

이렇게 **소통에서 친교성이 증시되고, 논쟁에 감정이 실리는 것은 구술문화의 특징**이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90%. 그때만 해도 인구의 대부분이 구술문화에 속해 있었다는 얘기다. 그로부터 6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맹률은 거의 0%에 가깝다.

서구에서 몇백 년이 걸린 과정을 우리는 몇십 년 만에 똑딱 해치워버렸다. 구술문화의 특성을 완전히 지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 아닌가. 우리 의식에 아직 구술적 특성이 강하게 남은 것은 이 때문이다.

▲ 우리의 인터넷 글쓰기

예컨대 우리의 인터넷 글쓰기를 보면 논리나 추론은 없고 찬양이나 비난만 있다. 차가운 비판은 없고, 넘치는 것이 뜨거운 욕설이다. 자신의 인격을 책임진 개인은 사라지고, ID 뒤에 숨은 익명의 집단들이 때를 이뤄 사냥감을 찾아다닌다. 그러다가 공격 대상을 발견하면, 디지털 멍석말이에 들어가 마음껏 원시적 감정을 분출한다.

⇒ 우리의 인터넷에서 너무나 자주 보는 이런 현상은 분명 문자문화 이전의 습성,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이 정신적 낙후성이 외려 기술적 선진성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인터넷 자체가 새로운 구술성의 매체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글쓰기는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을 글로 타이핑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구술문화와 문자문화가 묘하게 뒤섞인다.** 우리가 그토록 인터넷에 열광하는 이유는, 여전히 강한 구술성이 남은 우리의 의식이 거기에 적합한 첨단매체를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 맥루언의 테제들

▲미디어는 메시지다.

이 말은 이니스의 영향을 물론 받았겠지만 그 전에 이미 **낭만주의의 예술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식**을 중요시한 데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현대 예술에서 진리는 형식 속에 침전되고 내용이 사라져버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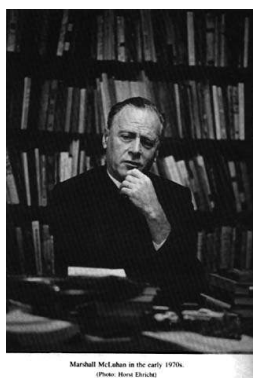
→대상의 재현이 깨지게 되면서 형식 안에 내용이 담긴다는 이러한 테제는 20 세기 초반부터 일반화되었던 경향이고 19세기 낭만주의에서도 나타난다.

현대 예술은 자기 지시성을 가진다. 즉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예술 그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다. 미술에서 선과 형태 자체를 탐구하는 것처럼 매체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것이 미학적 현대성이라고 볼 때 맥루언은 그러한 미학적 관점, 문예이론이나 예술이론의 관점에서 형식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미디어 형식주의**

▲미디어는 마사지다.

벤야민은 미디어를 지각의 문제와 연결시켰었는데 맥루언도 이와 비슷하게 마사지라는 촉각적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사지는 촉각적인 현상이고 미디어가 가진 촉각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벤야민이 말하는 시각적인 지각을 촉각적인 지각으로 바꾸어놓는다는 명제와 일치한다.**

▶ 참고자료



맥루한 [Herbert Marshall McLuhan, 1911.7~1980.12.31]

1964년 『미디어의 이해』라는 저서를 통해 '미디어는 마사지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라는 견해를 밝혀 현대 미디어이론에서 사용하는 '미디어'라는 단어와 가장 근접한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미디어의 발전과 인간 존재의 관계를 연구하여 근대의 인쇄혁명과 TV로 대표되는 전자미디어가 서구문명에 미칠 영향을 예견하여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촉각적 지각

구술문화에서 문자문화로 넘어올 때에는 **감각의 편중이 생긴다는 것이다.** 문자를 기록하게 되면서부터는 음성이 사라지고 눈으로 읽게 된다. 사람들은 처음엔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섯 가지 감각을 모두 사용했었는데 말을 사용하게 되면서 청각이 발달한

다. 말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시각이 발달한다.

낭독문화가 묵독문화로 변하면서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것은 합리주의건 경험주의건 내 의식으로 내 의식을 들여다본다는 근대 철학의 패러다임이 된다.

모든 감각의 바탕이 되는 감각은 **촉각**이고 여기에서 다섯 가지 감각이 분화되는 것이다. 들뢰즈의 말에 따르면 원시적인 감각은 **공감각**인데 즉 귀로 보고,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듣는 식의 감각을 말한다. **맥루언이 말하는 공감각은 다섯 가지 감각을 골고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맥루언은 전자매체가 글을 사용하고 난 뒤에 생겨난 시각과 청각의 편향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정치적 기능

1950년대에는 텔레비전이 가정으로 들어온 시대인데 쿤터 안더스는 텔레비전이 가정도 파괴하고 individual을 파괴해서 dividual로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으로 산포시킴으로써 정치적인 것 자체를 사라지게 한다고 했는데 맥루언은 미디어가 어떤 정치적인 기능을 한다고 본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맥루언이 연구할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정치토크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또한 케네디와 닉슨이 선거운동을 할 때 라디오를 들은 사람들은 닉슨이 유리하다고 보았지만 텔레비전을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유리하다고 보았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텔레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텔레비전이라는 미디어는 케네디가 닉슨을 누르고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벤야민이 영화 매체가 대중의 비판적 의식을 높여주고, 정치적 참여를 부추긴다고 본 것처럼, 맥루언은 그런 비판적, 정치적, 진보적 기능을 텔레비전에서 기대했다.

⇒ 벤야민의 기대가 지나친 낙관이었던 것처럼 맥루언이 텔레비전에 걸었던 기대도 지나친 낙관이었던 것일 수 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 눈에는 좀 기이하게까지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참여'라는 문제를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의 얘기가 마냥 터무니없이 들리지는 않을 것이다.

▲핫미디어와 쿨미디어

'핫미디어'와 '쿨미디어'를 구별하는 기준은 **정세도와 참여도**이다. 맥루언의 구분에 따르면 영화는 핫미디어, 텔레비전은 쿨미디어이다. 사실, 영화는 해상도가 높고, 텔레비전은 해상도가 떨어진다. 영화와 달리 텔레비전의 영상은 주사선을 통해 망점이 배열되는 형태로 이미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정세도가 높으면 참여도가 떨어지고 참여도가 높으면 정세도가 떨어진다.→ 반비례관계

정세도가 떨어지는 매체는 영상을 완성시키는 데에 시청자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영화는 화면이 너무나 완벽해서 영상을 완성시키는 데에 굳이 관객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영화의 영상은 완성된 형태로 관객의 눈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다.

반면 주사선을 통해서 망점이 배열되는 형태로 형성되는 텔레비전의 화면은 다르다. 마치 점묘화의 그림처럼 한 무더기의 망점들로 제시되는 화면에서 망점과 망점을 연결해 모자이크처럼 상을 짜는 데에 시청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셜 맥루언은 TV 영상의 모자이크적 성격을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의 일곱 개 별을 연결해 국자 모양을 만드는 것은 바로 보는 이의 과제가 된다. 반면 국자의 그림이 완성된 채로 주어지면 국자를 국자로 인지하는 데 보는 이가 기여할 일은 없어진다. 그리하여 맥루언은 해상도가 높은 영화(hot media)와 달리 화소의 모자이크로 된 TV 영상(cool media)은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대신 시청자의 참여도는 높다고 말한다.

'TV가 고해상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되는가?'

맥루언은 이 물음에 단호하게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TV가 아닐 것'이라고 대답했다.

▲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

의수이론Prothese-these(프로테제는 의수나 의족, 인공장기 같은 것을 말한다)

텔레비전은 인간의 눈을 확장시킨 것이다. 라디오는 귀의 확장이고 기차는 다리의 확장이며 포크레인은 팔의 확장이다. 이는 미디어에 관한 **의수이론**이라고 한다. 맥루언이 말하는 미디어의 개념은 굉장히 넓은데 transportation이나 communication만이 아니라 전등도 미디어가 된다.

→맥루언이 보기엔 인간과 세계 사이에 들어오는 것, 인간이 만든 모든 도구가 미디어이다.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인간의 정의 자체가 인간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1)어떤 미디어와 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또한 (2)같은 미디어와 결합을 할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결합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예) 운전을 배운다는 것도 자동차와 나이 결합도를 높이는 것이고 타자를 치는 감각은 손가락에 이미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 본다는 점에서 맥루언은 근대적이다.

▲ 내파implosion와 지구촌

지구촌Global village 개념은 다양한 함의를 가진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내부의 동질성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공동체 바깥의 경계들을 해체시켜버린다.

⇒ 바깥으로 외파explosion되고 동시에 **내부의 차이들을 지워버리게 된다.**→ 내파

구술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들, 민주주의, 쌍방향성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하나의 빌리지village로 만들어버리고 제국주의적인 동질성의 폭력을 행사하는 파괴적인 측면도 있다.

캐나다 토론토 학파는 일반적으로 전자매체에 대해서 낙관을 한다. 구텐베르크 은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해서 문자문화의 편향bias을 바로잡게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이들은 전자매체가 가진 제국주의적 성격들에 대한 막연한 우려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